

통장은 추대?...선출방식 놓고 둘로 갈린 마을

광주 북구 석곡동 장동마을 거수투표 강행 일부주민 반발 석곡동장 "해결 방법 없다"

광주시 북구 석곡동 장동마을 주민들이 통장 후보자 선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투표를 주도한 일부 주민들이 통장투표 과정에서 비밀투표 요구를 무시하고, 거수(擧手)투표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비밀투표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초등학교 반장투표도 비밀 투표가 기본인데, 거수투표가 말이 되느냐. 일부 주민은 눈치를 보느라 소신 투표를 하지 못했다"며 법적으로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통장임명권을 쥐고 있는 해당 주민센터 동장은 "주민끼리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해 갈등 해소를 꺼려 되레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통장선출에 따른 갈등은 다른 마을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통장선출 체계 정비에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광주시 북구 장동마을주민자치회와 석곡동주민센터 등에 따르면 북구 석곡동 장동마을(14통)은 지난 27일 주민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총회를 열고 신임 통장후보자 선출을 진행했다. 주민 합의로 통장 후보자가 결정되면 석곡동장의 임명을 거쳐 정식 발령된다.

이날 투표에는 마을주민 2명이 통장 후보로 나섰으며, 총회 초기부터 선출 방식을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한쪽은 후보자의 이름을 적어 내는 비밀투표를, 다른 한쪽은 거수투표를 주장한 것이다.

거수투표를 주장한 쪽은 고령주민 중 일부 문맹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비밀투표를 주장한 측은 2명의 후보자가 나선만큼 비밀투표는 당연하며, 상당수 주민이 공개적인 거수투표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고 맞섰다.

더욱이 이날 투표 방식 결정도 거수투표로 진행되면서, 이에 반발한 후보자와 주민들이 투표를 거부하고 투표장을 나갔다.

비밀투표측에 선 주민은 "거수투표를 하자고 하는 쪽은 토박이 원주민측으로, 자신들을 선택하지 않은 주민들에겐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다"면서 "평소 경로당 등을 공동으로 이용해야 하는 어르신들이 거수투표시원 원주민측 후보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후 선거위원장은 남은 주민을 대상으로 단독후보를 반대하는 주민은 손을 들고 했으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자 박수를 치는 방식으로 통장후보를 추대했다.

이번 투표장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한 마을 주민은 "요즘은 초등학교 선거도 비밀투표로 몇몇에게 하는데 어른들 선거가 이래서야 되겠냐"면서 "이번 거수선거를 주도한 측이 마을회관 등의 운영권을

취고 있다보니, 어쩔 수 없이 동의한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사실 이 같은 갈등의 배경엔 이른바 토박이 원주민과 외지에서 유입된 주민간의 뿌리 깊은 대립이 자리잡고 있다.

장동마을 주민들은 지난 2015년 마을 공동작업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판매 대금 분배를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마을 자체적으로 원주민과 외지에서 유입된 주민으로 구분한 뒤 원주민에게만 수백만원씩을 분배해 소송전으로 번지기도 했다.

주민들은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통장선출에 따른 갈등 해소를 촉구하고 있지만, 해당 동장은 "해결 방법이 없다"며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김종선 석곡동장은 "통장선출 방식은 조례를 통해 각 마을에서 주민간 합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통장 후보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사유가 없으면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김종선 석곡동장은 "통장선출 방식은 조례를 통해 각 마을에서 주민간 합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통장 후보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사유가 없으면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4 해질 17:58 달돋이 02:48 달질 13:29

흐린 하늘
구름 많다 오후부터 흐려져 밤부터 비 오는 곳 있었다.

광주	흐림	-2/11	보성	흐림	-4/11
목포	흐림	-1/7	순천	흐림	-1/13
여수	흐림	2/11	영광	흐림	-4/7
나주	흐림	-4/10	진도	흐리고 한때 비	-1/7
완도	흐림	0/10	전주	흐림	-3/9
구례	흐림	-5/11	군산	흐림	-4/7
강진	흐림	-3/11	남원	흐림	-5/10
해남	흐림	-4/8	홍산도	흐리고 한때 비	3/7
장성	흐림	-4/1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1.0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북동	1.0~1.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0.5	북~북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서~서	0.5~1.0	북서~북	1.0~1.5
남해 서부 앞바다(대서)	북~북동	0.5~1.0	북~북동	1.0~2.0

◇생활지수

눈음	뇌출중	매우 높음	보통
감기	미세먼지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2:26	10:00
여수	간조	만조
	15:35	22:03
여수	간조	만조
	11:34	05:34
여수	간조	만조
	23:34	17:16

◇주간 날씨

31(목)	2/1(금)	2(토)	3(일)	4(월)	5(화)	6(수)
☁	☁	☀	☁	☀	☀	☀
2/2	-4/5	-3/7	2/8	1/8	-1/7	-1/8



이주여성 가래떡 썰기 경연 29일 광주시 서구 건강가장·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설날 북 나눔잔치'에서 이주 여성들이 가래떡 썰기 경연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교육현장 친일 잔재 청산 착수...TF팀 첫 회의

광주시교육청이 교육 현장의 친일 잔재 조사와 청산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2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친일 잔재 조사와 청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학계, 시민단체, 역사조사 모임 대표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는 TF의 역할, 교육공동체 공감대 형성 방안, 기초조사 방법 등이 논의됐다.

의됐다. 교가, 교기, 교목, 기념비, 표지석은 물론 교과서 속 친일 작품, 행정 용어, 반장, 조희, 주변 등 무형의 친일 문화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자료 수집·분석, 친일 잔재의 청산 또는 활용 방안 연구 등을 전문 기관에 맡기는 방안도 제시됐다.

시교육청은 기초조사와 자료 수집 작업을 거친 뒤 분석·정리,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한 활용 방안 마련 등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친일 청산 작업은 광주제일고, 대동고 등 광주 학교 상당수 교가를 친일음악가들이 만들었고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도 불리우고 있다는 광주시 교육보고서(광주일보 2019년 1월 10일자 1면)가 나오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보훈처 수피아여고 동상 등 3·1운동 보훈시설 일제점검

지난 1995년 1월1일 광주시 남구 수피아여자고등학교에 세워진 광주 3·1만세운동 기념 동상은 건립 20년이 지나며 녹이 슬고 부식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수피아여고 등 국내 주요 현충시설과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29일 보훈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우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자주 찾는 현충시설과 독립운동 사적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그 외 현충시설과 사적지 역시 올해 안에 안전진단과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현충시설은 지난해 진행했던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별도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건립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은 전문가 현장조사와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 별도 관리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보수 조치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시급히 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로 수피아여고 3·1운동 기념동상과 함께 서구 농성광장에 지난 1998년 세워진 죽봉 김태원 의병장 동상, 1973년 육군보병학교가 건립한 안중근 의사 동상이 선정됐다.

보훈처는 또 이달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연해주 등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에 현지 점검단을 파견, 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개보수할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대병원, 獨대학과 새 고혈압 치료제 개발

전남대병원 연구팀이 독일의 유명대학과 함께 새로운 고혈압 치료제를 개발했다.

전남대병원 심혈관계융합연구센터의 기해진 연구교수를 비롯한 최진성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독일 하인리히 하이네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새로운 HDAC 억제제인 'LMK235'가 혈압강하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은 '히스톤 탈아세틸화효소 억제제인 LMK235는 고혈압에서 혈관수축과 혈관 재형성을 억제한다(제1저자 최진성·교신저자 정명호 교수·기해진 연구교수)'는 제목으로 최근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기해진 연구교수의 주도로 하인리히 하이네 대학의 토마스 쿠르츠 교수와 5년간의 생리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연구결과 'LMK235'가 혈관수축을 감소시킴에 따라 혈압강하 효과가 나타나며, 이는 혈관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 산화질소(nitric oxide) 작용에 의해 기인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는 'LMK235'가 고혈압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주목을 받게 됐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경찰 설 연휴 음주운전 집중단속

광주지방경찰청이 설 명절 기간 강도 높은 음주단속에 나선다. 설 명절 때마다 음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14~2018년 설 연휴 기간동안 총 49건의 음주 사고가 발생해 127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은 귀성길에 시작되는 오는 2월 1~6일 교통경찰과 기동대 등 기용경찰을 최대한 동원해 광주지역 진출입로와 광주터미널, 송정역 등 교통혼잡지역·사고 다발지점 8개소에서 특별교통관리를 펼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융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제품
LG ESS 삼성SDI SAMSUNG

ESS·설계·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자가용태양광 남은 전력 100% 판매

- 주택, 상가, 공장, 슬라브, 마당, 토지에 태양광 설치하여 한전과 상거래 인여전력을 판매하는 방식
- 빌딩, 창고, 상가, 주택 등에 자가용으로 설치된 태양광 설비라도 쓰고 남은 전기를 시장에 판매하면 REC+SMP가 적용된다. (20년 장기계약 가능)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 15KW설치시 예상수익

기존사용량 (KW)	청구금액	태양광설비 후 예상청구금액	설비 후 발전량 (예상발전량-기존사용량)	판매수익 (SMP+REC+전기료절감액)
150	12,390원	2,210원	1,650KW/h	322,259원
200	17,690원	2,210원	1,600KW/h	317,740원
300	44,400원	2,210원	1,500KW/h	324,743원
400	65,760원	2,210원	1,400KW/h	325,805원
500	104,140원	7,090원	1,300KW/h	343,718원
600	136,050원	17,690원	1,200KW/h	355,170원

▶ 자가소비량은 기존 사용량의 40%계산됨
▶ 월 예상발전량은 15KWx4시간x30일=1,800KWh로 월 계산
▶ 판매수익은 SMP+REC+태양광설비후 예상절감 포함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광주지사 010-5655-5678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

주소 | 순천시 중앙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 · 010-8605-2740